


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 
경제관계장관회의 겸  
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 
25-5-2  
(공개)

 역동경제로  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#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

2025. 2. 5.

반도체산업협회, 배터리산업협회,  
조선해양플랜트협회, 자동차협회, 철강협회

## 순 서

I. 반도체 산업 .....	1
II. 배터리 산업 .....	3
III. 조선 산업 .....	5
IV. 자동차 산업 .....	6
V. 철강 산업 .....	8

##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

### I 반도체 산업

#### 1. 최근 산업 동향

- '24년 반도체 시장은 AI 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하며, 전년대비 20.4% 증가한 6,434억불\* 달성

\* 시장조사기관(Omdia, Gartner, WSTS) 전망 평균치

- '25년 반도체 시장은 견조한 AI 서버 투자와 함께 On Device AI 제품 출시로 전년 대비 13.3% 성장한 7,288억불로 전망

- '24년 반도체 수출은 HBM,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43.9% 증가,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

\* 역대 반도체 수출실적(억불) : ('24)1,419 - ('23)986 - ('22)1,292 - ('21)1,280 - ('20)992

- '25년 반도체 수출은 소비재 IT 기기 수요 둔화 우려,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 및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불확실성 증가

- 中 스타트업 '딥시크'의 AI모델 공개에 따른 AI 반도체 시장 변화 가능성

- 고성능·고가의 AI 반도체 시장 축소 또는 AI 반도체 시장 저변 확대

#### 2.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 영향

- 대중 고율 관세 및 보편 관세로 인한 전반적인 관세 인상은 IT 완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수요 둔화시킬 가능성

- '24년 한국의 대미 반도체 집적회로(IC)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75%(1068억불)로 반도체 관세 부과 시 수요 감소, 가격경쟁력 약화 등 직·간접 영향 예상

- 한국과 미국은 상호보완적 관계의 교역상대국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한 파트너로 공감대 형성이 중요

- 한국은 미국 반도체장비 SW의 주된 수요처이자 미국 내 디램, HBM 등 주요 메모리반도체의 공급처

□ **(수출통제)** 국가안보 차원 AI 및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
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수출통제 기조 지속·강화 예상

- ‘딥시크’ AI 모델 출시를 계기로 중국 견제를 위하여 저사양 AI칩 등 레거시 칩\*과 장비로 수출통제가 확대될 가능성

\* 28나노미터 이상의 공정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로 첨단 반도체와 대조되는 범용 반도체

□ **(CHIPS 보조금)** 국내 반도체 제조·소부장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 반도체법(CHIPS Act)을 통해 제조기업 보조금 지급 발표

- 행정명령 통한 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 등 정책 변화 시, 그에 적절한 대미 투자 및 현지화 전략 수정 여부 검토 필요

<한국 주요 반도체기업 대미 투자 현황>

기업명	지역(州)	투자 내용	투자(예정) 규모(\$)	보조금 규모(\$)
SK하이닉스	인디애나	첨단패키징 공장 건설	38.7억	4억8,500만
삼성전자	텍사스	제조공장 신증설	450억	47억4,500만

### 3. 대응방향

□ 미국 정부, 의회 및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양국 산업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 유지 및 미국 내 한국 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중요

- 협회를 중심으로 미 주요 기관(싱크탱크, 미협회 등)과의 교류 통한 상황 모니터링, 각종 조치 사전 효과 분석 등 적극 대응 계획

## 1. 최근 산업 동향

- 우리 기업은 중국의 시장진출 확대로 EU시장 점유율이 하락세이나, 미국 시장에서는 IRA 영향 등에 따라 상승세 유지중

\* EU 한/중 배터리 점유율(%) : ('22) 63.6/32.1 → ('23) 55.0/41.5 → ('24) 50.8/44.7

\* 미국 한/중 배터리 점유율(%) : ('22) 38.0/15.0 → ('23) 43.4/17.1 → ('24) 49.5/15.2

- 특히, 핵심광물 가격 하락, 중국산 소재 대비 가격경쟁력 열위로 국내 4대 소재기업 8개 중 7개사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 악화

\* '24년 3분기 기준 영업손실(억원) : 엘앤에프(724), SKIET(730), 에코프로비엠(412)

## 2.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 영향

- (행정명령) 트럼프 취임 직후 '미국 에너지 해방(Unleashing American Energy)' 행정명령을 통해 배터리 관련 주요 내용 발표

- (전기차 의무 폐지)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 위해 내연차 관련 규제 철폐, 불공정 보조금\*(30D 등) 및 시장 왜곡 제거

\* 평균연비규제, 배출가스 제한 등 \*\*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,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폐지 주장

- (그린뉴딜 종료) IRA에 따른 재정지출\*(보조금, 대출, 계약 등) 중단하고, 이는 전기차 의무 폐지 정책 방향성과 합치된다고 규정

\* 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,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보조금을 사례로 명시

- (관세) 미국이 캐나다에 25% 관세 부과를 본격화\*할 경우 캐나다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악화 우려

\* 행정명령 서명('25.2.1일) → 관세부과 1개월 유예 발표('25.2.4일)

- (영향) 트럼프 2기의 통상, 안보정책은 위협요인도 있지만, 미국 현지에 생산체제를 구축 중인 우리 업계에게는 기회요인도 상존

- 중국산 배터리 제품 관세 인상시 우리 업계의 가격경쟁력 상승 →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역할 부상

\* 미국은 배터리 수입의 70%를 중국에 의존(23년 기준 131억불(18.4조원)에 달하는 규모)

\*\* 최근 세계 1위 배터리기업인 CATL을 중국 방산협력기업(Chinese Military Company)으로 지정

- 다만, 미국의 대중 견제 시 **핵심광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**  
→ 흑연 등 대중국 공급망 탈피가 어려운 품목의 **수급 차질** 예상
- **IRA 전기차 보조금(30D) 폐지**는 가능성이 높고 **생산세액공제 (AMPC) 폐지**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**면밀한 모니터링** 필요
  - \* 전기차 수요감소, IRA 수혜가 축소될 경우 공장건설 속도 조정 가능성, 생산가동을 하락으로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

### 3. 대응방향

- 캐나다 관세부과의 경우 **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셀에 대해 미국 외 국가(유럽 소재 고객 공장 등)에 수출 가능한지 검토** 中
- **협회와 배터리 3사 중심으로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**
  - 협회, 3사의 공동메시지 리플렛\*을 마련, 우리 투자지역 7개주  
주정부 · 의회 · 카운티 대상 **풀뿌리(Grassroots) 아웃리치** 추진
    - \* ❶美 배터리산업의 중요성, ❷美 National Security 이익 부합, ❸美 공급망 안정화 기여, ❹Made in America
  - **경제단체(한경협, 무협, 대한상의, 코트라), 협회가 연계하여 워싱턴 DC 행사시 한미 배터리 포럼 개최 및 주요 핵심인사 면담**
- **美 싱크탱크 활용한 한미 배터리 협력 중요성 전파**
  - 행정부 · 의회에 영향력 있는 **싱크탱크(CSIS, AFPI 등) 전문가를 섭외하여 한미 배터리 동맹 필요성 등을 담은 분석보고서 발간**
    - \* 동 전문가를 인터배터리(3월), 현지 포럼 등에 초빙하여 빅마우스로 활용

## 1. 최근 산업 동향

- **(현황)** '24년 한국 수주량, 전년 대비 9.1% 증가한 1,098만CGT 수주(시장점유율 17%), 수주잔량은 3,716만CGT (약 4년치 일감확보)
  - 중국의 공격적 수주(비중 70%)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은 고부가선 위주의 선별수주 전략 유지
- **(전망)** '25년 세계 발주량은 과거 10년('15~'24) 평균발주량(4,060만 CGT) 상회하며, '30년까지 전조세 유지 전망
  - IMO(국제해사기구), 2050년 100% 온실가스 감축목표 → 탄소 저감기술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
  - 주력 선종 분야(고부가, 저탄소선박)에서는 중국과 격차가 축소되며 기술경쟁이 본격화

## 2.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 영향

- 美 조선산업 재건 협조 요청 시, 노후화된 현지 조선소 현대화 등 협력이 필수적이나 조선업 특성상 상당 기간 소요 예상
- 美 해양 경쟁력 강화에 따른 군함 MRO 수주 확대 및 신조 수주 가능성
  - 현재 일부 군수지원함 MRO 수행 중이지만 수익성 높은 전투함의 MRO 및 신조 참여 확대 기대

## 3. 대응방향

- 정부의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전방위적 협력에 발맞추어 한-미 조선협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민·관 협의체 구성·지원 필요

## 1. 최근 산업 동향

□ '24년 자동차 산업은 내수는 부진, 수출은 북미 시장 호조세로 증가

- (내수) 경기부진 지속, 고금리, 높은 가계부채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전기차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비 6.5% 감소한 164만대
- (수출)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의 견조한 수요, 국산 SUV·HEV의 글로벌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비 0.6% 증가한 278만대

\* 대미 수출현황 : 총 143만대로 전체 수출의 51.5% 차지, 현대차 64만대 (44.4%), 기아 38만대(26.3%), 한국지엠 42만대(29.2%)

□ '25년 내수는 소폭 증가, 수출은 감소세 전환 전망

- (내수) 인플레이션 완화·금리인하에 의한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반등 전망이나, EV 캐즘·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1.5% 소폭 증가한 166만대 전망
- (수출) 미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, 중국 수출 확대, 해외생산 증가 등으로 3.0% 감소한 270만대 예상

## 2.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 영향

□ 무역적자 개선, 제조업 및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관세 부과 중심 보호무역주의 정책 가능(보편관세/멕시코산 제품 관세/232조 적용 등)

- 보편관세(10~20%) 도입시 한국의 높은 대미 수출 편중도 (50% 이상)로 수출물량 유지에 차질 및 수익성 악화 우려

\* G사 수출의 미국 의존도는 약 90% 수준('24년 기준 88.5%)

- 멕시코산 관세(25%) 부과시 현지 공장 대미 완성차 수출 감소·수익성 악화 및 부품공급 차질로 미국내 완성차 가격경쟁력 하락 우려

\* K사 현지공장 생산물량 중 약 60% 美 수출('24년 기준)



- 높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실시하고 고율 관세 또는 쿼터 설정 부과 가능성

#### □ IRA 정책 폐기·축소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

- 장기적인 친환경차 전환 정책 방향에 대한 영향은 적으나, 미 현지 투자를 이미 시행한 완성차·배터리 기업의 기대수익 감소 우려

### 3. 대응방향

#### □ 대미 투자확대 등 현지화 노력 강화

- H그룹은 앨라바마·조지아 및 매타플랜트 생산공장, R&D 시설 등을 포함, 약 200억달러 투자, 57만명 고용 창출(직접 15만명+간접 42만명)

\* 미국 판매 중 현지생산 비중은 현재 약 44%로 신공장 가동시(30~50만대 규모) 60~75% 수준으로 확대 전망

- 배터리 업계도 '27년까지 총 512억달러 신규 투자 계획

#### □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 투자·수출 다변화

- H그룹은 인니에 완성차(15만대 규모), 베트남에 CKD\* 공장(20만대 규모)을 운영하고 확대할 계획

\* CKD(Complete Knock Down) : 자동차 부품 등을 조립하지 않고 수출하고 수출국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하는 형태

- 협회도 인니·태국·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국을 대상으로 민·관 네트워크 활동 등을 추진

#### □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시나리오별 상황에 선제 대응하고, 대미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국의 자동차협회\*들과 협력

\* 유럽(ACEA), 독일(VDA), JAMA(일본) 등

- 멕시코산 관세부과 관련 생산지 변경, 판로 확대\* 등 해당국·글로벌 OEM들의 대응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대응 예정

\* 미국내 생산 확대로 미국 시장 대응, 멕시코산 미국 외 북남미/유럽 등으로 판로 확대

## 1. 최근 산업 동향

□ (세계) '24년 중국은 '15년(1.2억톤) 이후 최대 수출(1.02억톤), 이로 인해 인도, 아세안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\* 확대 추세

\* (세이프가드) 인도 판재류 조사중, (반덤핑) 말련 석도강판, 베트남 아연도강판, 튀르키예 후판 등 3개 품목, 한국 STS 열연·냉연·후판, 후판 등

○ 풍선효과로 인해 저가 중국산의 국내 유입 확대 가능성 우려

□ (국내) 철강 수요 감소, 저가 수입 확대 등 업계 경영환경 악화

○ 내수는 감소('23년 5,240만톤→ '24° 4,960만톤)한 반면 저가 수입산 지속으로 내수 대비 수입산 점유비 확대\*

\* 열연 수입량(만톤, 점유비) : ('20) 337, 34.1% → ('22) 340, 37.4% → ('24) 373, 41.8%

○ 이로 인해 시장 가격 하락\* 등 업황 악화로 설비 폐쇄 및 감산\*\*

\* 열연 유통가(톤/천원): ('23.2Q) 1,000→ (4Q) 865→ ('24.2Q) 823→ (4Q) 805

\*\* (포스코) 포항 1선재 폐쇄, (현대제철) 포항 2공장 형강 감산

## 2.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 영향

□ 철강 수입 장벽 강화 정책 시행 시 공급망 차질 우려

○ 美 상무부는 철강 232조\* 재조사 여부를 검토(결과발표 : '25.4.1일) 하는 등 한층 강화된 수입방어 정책 추진이 우려

\* 기존에 발효된 철강 232조 및 그 예외 조치 등의 효과성 검토(4.b)

○ 한국에 부여한 연간 263만톤 무관세 쿼터\* 축소시 현지에 있는 현대기아차, 삼성, LG 기업에 대한 소재 공급에 영향 우려

\* 국별 쿼터 현황 : (일본) 125만톤 + 초과 시 25%, (EU) 330만톤 + 초과 시 25%, (브라질) 419만톤, (아르헨티나) 18만톤, (나머지) 25% 관세

□ 다만, 주요 수입국\*(캐나다, 멕시코) 대상으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美 내수 및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對美 수출을 통한 수익 향상 기대

\* '23년 美 수입순위(비중) : ❶ 캐나다(24%), ❷ 멕시코(15%), ❸ 브라질(14%)

### 3. 대응방향

※ 산업부-철강협회-업계-전문가 민관TF 운영중 ('24.3월~)

\* 對美 등 통상 대응 ('24.3월~, 철강 수출입현안 워킹그룹),  
철강산업 전반 ('25.1월~,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- 통상/경쟁력/저탄소 분과)

□ **(대응전략 수립)** 철강 수요산업별 행정명령\*을 분석하여 한국 철강제품의 美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여방안 논리 수립

\* 화석에너지 공급 확대 및 환경 규제완화, 인프라 건설 신속 추진 등

○ 공급망 연계 및 수급부족 품목의 경우 쿼터 확대 및 운영상 유연화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대응 논리 개발

□ **(對美 아웃리치)** 美 정부, 상·하원 의원, 싱크탱크 등 대상으로 한국산 인식 제고 위한 아웃리치 추진('25.상반기)

□ **(국내 생태계 강건화)**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

○ 불공정 무역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고도화된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무역구제조치 적극 검토